____월 ____일

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

정현의 강점은 자신감. (생략) 진정한 미덕은 가벼운 질문을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인의 인터뷰에서 보기 어려웠던 자세다.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대를 친구로 만들기에 좋은 자질이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을 보면 유머를 가지고 놀 줄 아는 것 같다. 무엇보다 8강 맨 마지막에 한국말로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라 했는데 최고의 문장이다. '4강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뻔하지 않은 대답을 해서 신선했다.

– 조선일보 2018년 2월 2일





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

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